

키와 흡연의 상관관계

윤창일

2019-07-30

서론

이 분석에서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군에서 키와 흡연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키에서 오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개인으로 하여금 흡연을 하도록 만드는지, 그것이 다시 심장병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이다.

방법

R의 ggplot으로 acs자료를 분석하였다. 키의 기준은 남성 평균치인 174cm와 여성 평균치인 161cm를 이용하였다. 키의 평균치는 한국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였다.

결과

```
library(ggplot2)
library(readxl)
library(tidyverse)
library(scales)
library(dplyr)

#setwd("C:/Users/cmc/Desktop/intern assignment/스트레스와 흡연율의 관계를 통한 키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acs <- read_excel("acs.xls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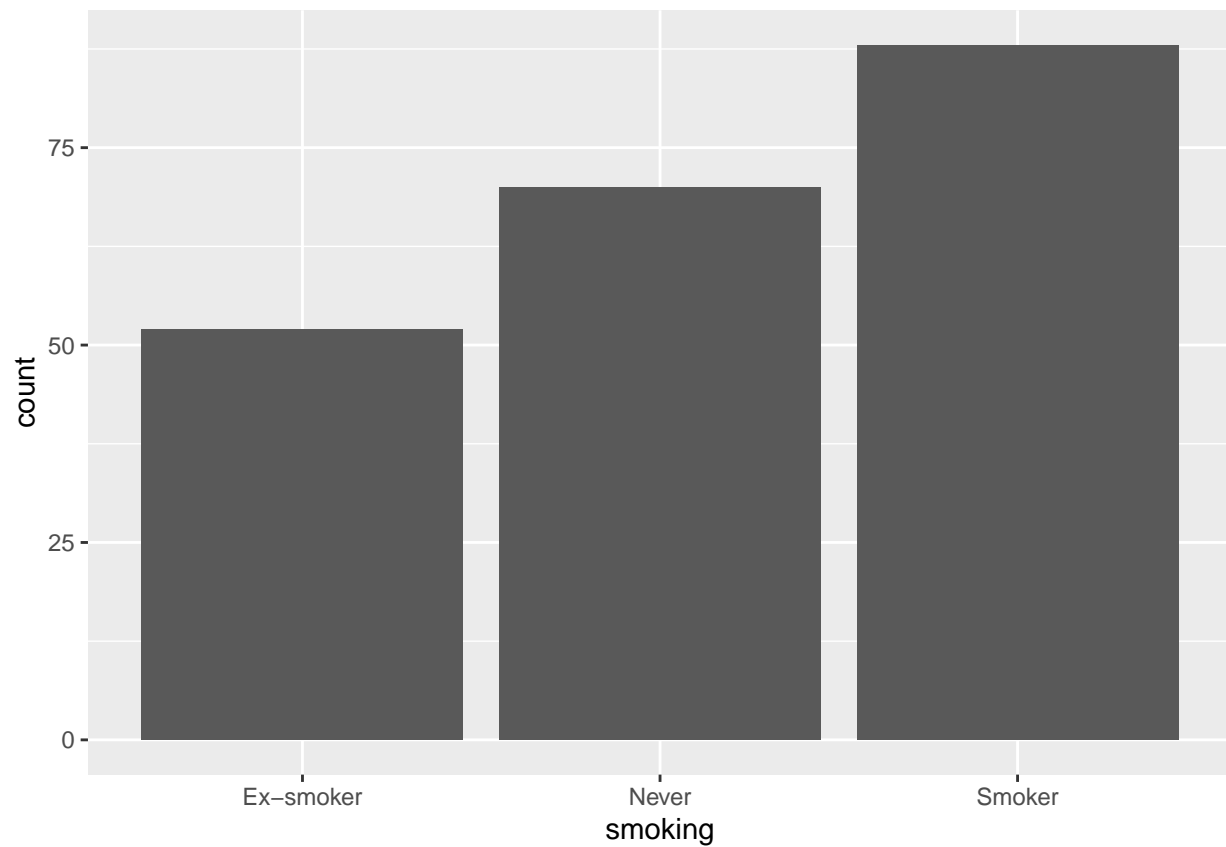
tacs<- acs %>% filter((height>=174 & sex=="Male") | (height>=161 & sex=="Female"))

sacs<- acs %>% filter((height<174 & sex=="Male") | (height<161 & sex=="Female"))

tggplot <- ggplot(data=tacs)+geom_bar(mapping=aes(x=smoking))
labs(title="Smoking of tall people")

## $title
## [1] "Smoking of tall people"
##
## attr(,"class")
## [1] "lab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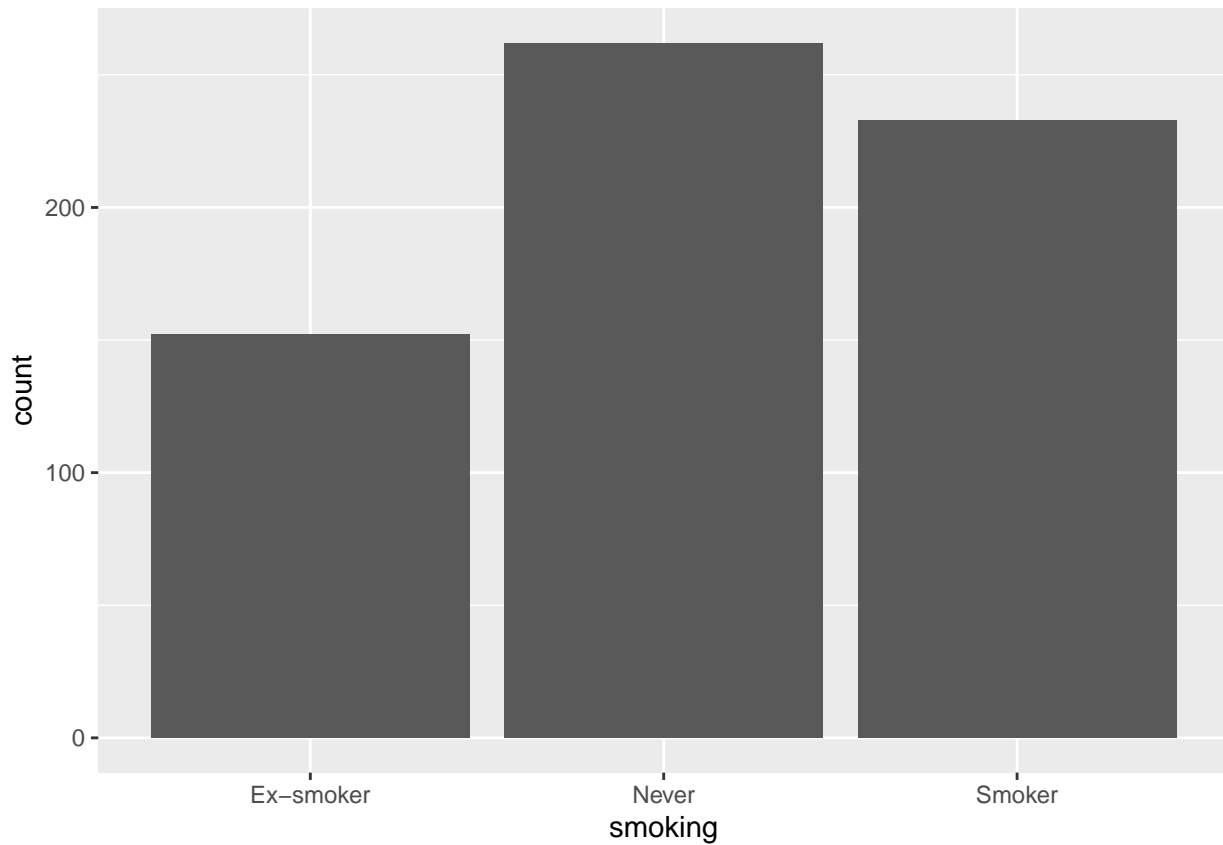
tggplot
```



```
sggplot <- ggplot(data=sacs)+geom_bar(mapping=aes(x=smoking))  
labs(title="Smoking of short people")
```

```
## $title  
## [1] "Smoking of short people"  
##  
## attr(,"class")  
## [1] "labels"
```

```
sggplot
```



키가 큰 집단에서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키가 큰 집단에서 흡연자의 비율이 비흡연자의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키가 작은 집단에서 비흡연자의 비율이 흡연자의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키가 크면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내세우기에는 분석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나 이 분석을 시발점으로 다양한 연구를 계획해볼 수 있다.